

[공통, 냉각수, 부동액 점검 & 교환]

부동액 냉각수의 종류

<https://bekomcar.com/ko/tutorial/pdf/43/>

⚠ 잘못된 냉각수를 사용하면 라디에이터 시스템이 부식될 수 있다. 생수를 사용하지 않는다. 부식의 원인이 된다. 비상시에는 증류수나 수돗물을 사용하도록 한다.

자동차 부동액 냉각수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다. 각 각 다른 색상과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한 최신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터리 팩 냉각을 위해 별도의 냉각수를 사용하기도 한다. 자신의 차량 매뉴얼을 참조하기 바란다.



냉각수 유형 및 특성.

올바른 냉각수 유형을 선택하는 것은 엔진 부식 방지와 냉각 시스템 및 엔진의 수명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유형의 냉각수에 대해서는 항상 자신의 차량 유지보수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1. **IAT - 무기 첨가제 기술.** 녹색 냉각수는 냉각수를 40,000km 정도로 자주 교체해야 한다. 국내 차량에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2. **OAT - 유기산 기술.** OAT 냉각수는 일반적으로 주황색, 노란색, 빨간색 또는 자주색 색상을 가지며 다른 냉각수 유형과 호환되지 않는다. 5년 또는 80,000km마다 냉각수 교체. OAT는 일반적으로 General Motors 차량에 사용된다.
3. **HOAT - 하이브리드 유기산 기술.** 주로 Chrysler와 Ford 차량에 사용되는 색상의 주황색과 노란색이다. 5년 또는 80,000km마다 냉각수 교체 한다.
4. **하이브리드 및 전기 자동차 냉각 시스템.**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배터리 팩을 위한 별도의 냉각 시스템이 있다. 차량 전용 냉각수만 사용해야 한다.

레퍼런스

1. <https://www.aaa.com/autorepair/articles/engine-coolant-101-the-right-coolant-for-your-vehicle>

태그

#전기차,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LPG, #디젤, #휘발유, #CNG

🔗 관련 콘텐츠 & 💬 Comments

1. 🔗 냉각수.부동액 점검
2. 🔗 전압측정으로 냉각수 교환시점 파악

본인 차량 메뉴얼을 참고하도록 한다. 그리고 냉각수는 가능한 혼합하지 않는것이 좋다. .

2022년 2월 18일 3:23 오후, #C367, (@sunjoo.moon)

👤 문선주, 편집일: 2022년 8월 5일 8:03 오전

❗**면책조항!** 모든 차량이 다르기 때문에 정비 작업 전에 해당 차량의 정비매뉴얼 지침을 지켜야 한다. 베콤카는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사용으로 인한 모든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재산 피해 또는 부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용자의 전적인 책임하에 홈페이지 콘텐츠를 사용하여야 한다.